

생명의 원천 물, 그림 속으로... '아쿠아 천국' 기획전

ACC 문화창조원 복합3·4관서 9월 12일까지
 '물' 주제 수생태계와 인간의 대안적 관계 모색
 5개국 작가 11명 참여 융복합 미술 14점 선봬

'기후위기 시대' 생명의 원천인 물의 가치와 소중함을 느끼는 융·복합 현대미술전이 광주에서 펼쳐진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은 기획 전시 '아쿠아 천국'(Aqua Paradiso)을 9일부터 9월12일까지 문화창조원 복합3·4관에서 연다.

'물'을 주제로 한 이번 전시에는 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대만, 프랑스 등 5개국 작가 11명이 참여해 현대 미술작품 14점을 선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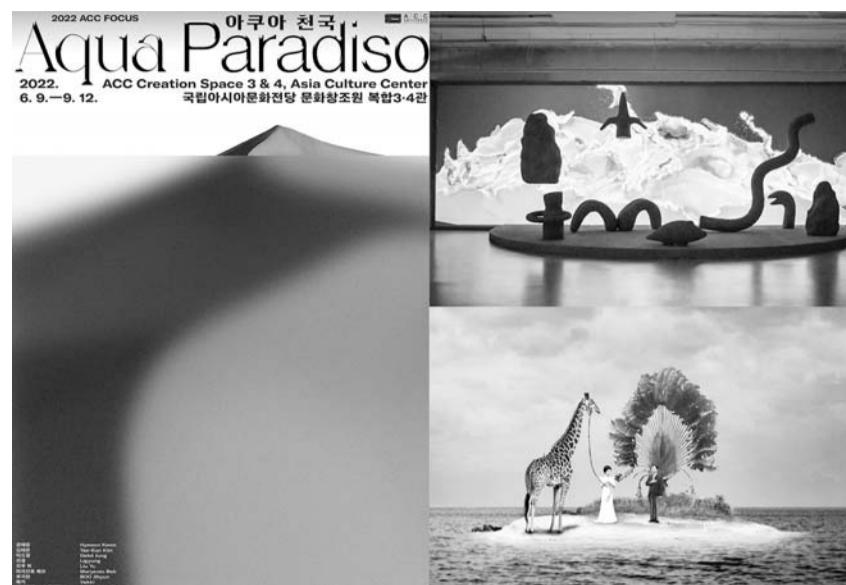
전설 속의 물을 비롯해 식민지 수탈의 역사에 사용된 물, 인간 무의식에 존재하는 물, 자연 생태계의 균형을 맞춰주는 물 등 다양하고 풍부한 물의 이야기를 그림으로 마주할 수 있다.

전시장에 들어서면 리경의 '폭포-나의 환희는 거칠 것이 없어라'가 관람객을 맞이한다. 천지연 폭포를 빛과 소리로 재해석한 작품이다.

이어 말레이시아 작가 이이란이 400년 간 술탄 술태국이 자배한 바다를 배경으로 역사적 사건과 자신의 기억을 투영해 창작한 '술루 이야기'가 눈에 들어온다.

인도 작가 마리안토의 벽화 '띠르파 페르위타사리'(생명의 신성한 물)는 자비 전통문화에 담긴 자연을 소개한다.

베니스 대홍수와 영산강을 소재로 제작된 프랑스 작가 아드리앵 M과 클레어 B의 '아쿠아 알타-거울을 넘어서'와 권혁원의 '액체비전', 치유



하는 물을 형상화한 김태은의 '구원 증발' 등도 감상할 수 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관계자는 "이번 전시는 생명의 원천이지만 귀중함을 모르고 있는 물의 소중함을 느끼게 할 것이다"며 "해양 오염의 지표가 되는 산호 연구를 바탕으로 한

작품도 설치돼 해양생태계 보존의 절박함을 관람객과 공유한다"고 밝혔다.

한편, '아쿠아 천국' 전시는 무료다.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 까지다. 수요일과 토요일은 오후 10시 까지 연장 개관한다. /이영옥 기자

해남 백련재 문학의 집 입주작가 토크콘서트

해남군은 6월 백련재 문학의 집 입주작가 토크콘서트를 개최한다.

백련재 문학의 집은 전남 해남군에서 운영하는 복합문화시설로 문인들의 창작을 지원하는 문학 레지던스 사업과 교육, 행사 등 다채로운 문학 행사가 열리는 특색 있는 공간이다.

이번 토크 콘서트는 백련재 문학의 집에서 글을 쓰고 있는 입주 작가와 군민의 만남을 통해 지역 문학을 활성화하고 백련재 문학의 집을 널리 알리고자 기획됐다. 행사는 8일부터 오는 22일까지 3주간, 매주 수요일 16시 30분에 평택순례문화관 북카페에서 운영한다.

이원화 상주작가의 진행으로 6월 8일 △고향감 극작가(아는 만큼 보인다) · 가수 손병희, 6월 15일 김재용 시조시인(나의 시는 예술이다) · 대금 연주가 문재식, 6월 22일 손민우 소설가(소설은 고유한 나를 찾기 위한 분투) · 시노래 가수 나무(백악회)의 토크와 공연이 이어진다. /해남=김동주 기자

'비나리·심청가' 짧은 감성으로 재해석... 밴드 악셀 공연

광주전통문화관 11일 오후 3시... 다시 태어나는 우리 소리

짧은 감성으로 재해석된 '비나리'·'심청가' 등이 무등산자락에서 울려 퍼진다.

광주문화재단은 11일 오후 3시 전통문화관에서 짧은 음악인으로 구성된 밴드 '악셀'을 초대해 토요상설공연을 선보인다고 7일 밝혔다.

로 만들어진 '심청가와 녹턴'이 공연된다.

또 춘향전의 '어사출도'와 '사랑가', 광대를 표현한 '광대', 별주부전으로 잘 알려진 수궁가의 토끼 잡아들이는 대목을 새로 탄생 시킨 '좌우나졸' 등이 연주된다.

공연은 현장 관람이 가능하며 전통문화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실시간 생중계 된다.

'광주 향토사 연구에 평생'...박선흥 광주학술상 제정

광주문화재단, 학술상 수상자 공모...상금 500만원

광주 향토사 연구에 평생을 바친 고 췌 던 고(故) 박선흥 선생(1926~2017)을 기리는 학술상이 만들어졌다.

광주문화재단은 혜운 박선흥 선생 추모 5주기를 맞아 '광주학술상'을 제정하고 지역의 역사, 문화, 사회, 인문환경 등을 확대 발전시킨 인물을 시상한다고 7일 밝혔다.

1926년 광주에서 태어난 박선흥 선생은 일제 강점기부터 광주에 관한 기록을 수집, 1994년 '광주1백년

1~3권'을 편찬했다.

또 1955년 호남지역 최초 산악회인 '전남 산악회', 1989년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 2001년 무등산공유화재단을 설립해 무등산의 역사·문화·자리를 기록한 '무등산(1976년 조판)'을 출간했다.

박선흥 선생의 책은 광주문화재단에 기증됐으며 유족들도 학술상 상금 5000만원을 기부했다.

광주문화재단은 박선흥 선생의 뜻을 잊기 위해 지역의 역사, 문화, 사



회, 인문환경 등에 대한 지역학 연구를 활성화하는데 노력한 공로가 있는 인물을 대상으로 광주학술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수상자에게는 상금 500만원과 학술도서 발간 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이영옥 기자

순천문화재단 '남문터 광장 기획전시'

이달 말까지 'Delete: 지움으로 비움' 주제

순천문화재단은 순천시와 함께 오는 30일까지 순천부읍성 남문터 광장 역사관에서 '2022 남문터 광장 기획전시'를 개최한다.

'2022 남문터 광장 기획전시'는 남문터 광장 활성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Delete 지움으로 비움' 이란 주제로 진행된다. 기화 펜을 사용하여 직접 쓰고, 지우고, 비워내는 과정을 통해 다양한 상처들을 치유하고 위로받는 시간을 제공하는 시민 참여형 전시프로그램이다.

표현·발견·지움·비움의 4가지

세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공간의 흐름에 따른 순차적인 체험을 통해 참여자가 자신의 상처를 마주하고 스스로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여,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쓰는 행위를 유도한다.

이를 통해 참여자들에게 슬픔, 비밀, 사랑 등 타인에게 감추고 싶었던

말들과 감정들이 담긴 글을 쓰고 지우게 함으로써 자신의 본 모습과 직접 마주하고 자신의 상처를 스스로 돌아보고 치유하는 시간을 제공한다.

이번 기획전시의 관람료 무료이며, 매주 월요일은 휴관이다. 순천문화재단 누리집 및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서 다양한 전시 관련 정보를 받아볼 수 있으며, 전시 관람·참여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와 SNS 이벤트를 통해 소정의 기념품도 제공할 예정이다.

순천문화재단 관계자는 "누구에게도 멀하지 못했던 지극히 개인적인 글들은 지워지고 다양한 사연들만 남아 있는, 비어 있지만 채워져 있는 전시를 통해 자신의 마음을 어루만지며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는 전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순천=조준의 기자

치매 속에 되살아난 기억 화폭에 담아

전남여성가족재단, 김점순 작가 '엄마의 꽃밭' 전



'머릿 속 지우개'라는 치매를 앓고 있지만 명징했던 순간의 기억은 영원했다.

6.25 한국전쟁과 여순사건 등 격동의 세월을 겪었던 치매 환자의 희로애락이 화폭에 담긴 꽃 그림 전시회가 열린다.

전남여성가족재단은 오는 30일까지 '치매 속에 되살아난 기억, 엄마의 꽃밭' 전시회를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작가는 일제 강점기인 1936년에 태어나 한국전쟁과 여순사건 등 근현대사를 관통해 온 김점순씨다.

김 작가는 2010년 치매 진단 후 희미져 가는 기억을 불잡기 위해 자식들이 건넨 미술도구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림은 어린 시절 겪었던 한국전쟁과 여순사건의 공포스러웠던 기억을 치유하고, 행복했던 추억을 소환하는 훌륭한 도구였다.

2014년 그림 활동 초창기는 크레파스를 활용해 초록잎이 풍성하고 화려한 꽃을 그렸다가, 2017년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에는 물감으로 도구가 바뀌고 색감도 푸른색과 어두운색의 오묘한 조합으로 전환됐다.

후기에 그린 그림들은 흩어진 기억의 조각들이 떠오른 듯 과거 어디쯤의 산과 들을 배경으로 가족 혹은 친구, 어쩌면 본인의 모습일 수도 있는 장면들을 담았다. 이후 치매 증세가 심해져 그림 활동은 중단됐다.

김 작가의 자녀는 "늘 곁에서 엄마를 둘러주시던 아빠가 돌아가신 후 상실감 때문인지 엄마의 꽃밭은 푸르고 아릇한 색으로 변했다"고 말했다.

전시회에서는 김 작가의 작품 45점을 선보인다. /무안=박태언 기자



아모레 카운셀러

전국 3만6천명 여성 최고의 직업

* 문의만 하여도 선물을 드립니다

대한민국
여성 화장품
판매 1위

대한민국
기초 화장품
**1위
설화수**

대한민국
색조 화장품
**1위
헤라**

제약에서
만든
건강식품



1. 여성으로 가장 잘 할 수 있고 가장 쉬운 사업입니다.

판매와 재판매가 손쉽고 고객과 본인이 함께 이뻐지는 일석이조!!

2.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쓰는 프리미엄 브랜드입니다.

설명이 필요없이 판매가 쉬운 대한민국 명품 화장품입니다.

3. 기본수당 + 영업판매수당 + 각종 판촉지원

+ 교육지원 + 해외여행 기회..... 등



아모레 신안특약점 수파스터 송광자

**010-3634-5083
062-522-2352 / 2353**